

보도시점 14:00 이후 배포 2026. 3. 25 (수)

## 글로벌 조달시장 개척 주도할 G-PASS기업 78개사 지정

- 2026년 1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서 수여식 개최
- G-PASS 신규 지정기업 집중지원 본격 시동... 진출시장 다변화 지속 지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5일 2026 나라장터 엑스포(KOPPEX 2026)가 열리는 일산 KINTEX(고양시 소재)에서 '2026년 1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하 G-PASS)'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G-PASS 지정 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조달기업을 지정하여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2013년부터 G-PASS 지정 제도를 시행하여 우리기업 해외 조달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오고 있다.

1분기 G-PASS 지정 기업은 총 78개사로, 신규지정 37개사와 재지정 41개사가 포함되었다. 신규지정 기업의 지정 심사 통과율은 약 47%로, 지난 분기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한편, 1차 심사가 면제되는 '지정 패스트트랙'을 통해 9개사가 지정되어 제도 시행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우수 조달기업의 G-PASS 지정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분기부터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실증)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과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 신규지정 기업 중에는, 연간 수출액이 천만 불을 뛰어넘는 주식회사 앤에스와 옵티시스(주), 혁신제품 해외실증 우수기업인 (주)삼정솔루션 등 역량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 주력 생산품: 안티드론건(삼정솔루션), 송풍기(앤에스), 광케이블·디스플레이(옵티시스)

한편, 2026년부터 G-PASS 지정 제도와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연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특히, G-PASS 신규 지정기업은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참여 시에 전용 트랙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새로 시행되는 유망기업 집중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정 이후에도 해외조달시장 특화 수출 지원 플랫폼인 'K-Procurement Platform'(<https://www.globalkoreamarket.go.kr/>)에 등록하여 해외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화 바우처

백승보 조달청장은 “전세계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달기업들의 글로벌기업 전환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새로 지정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보다 많은 조달기업들이 해외 조달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혜경	(042-724-7554)
		담당자	사무관	고성주	(042-724-6492)

